

■ 지방선거 핫코너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최형식 확정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로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확정됐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담양군수 후보로 최형식 예비후보가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최 후보는 전날 전 당원 여론조사결과와 일반 주민여론조사 각 50%씩을 반영한 후보 경선에서 유창중·강준문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과 민주당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경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두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후보 선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 지역발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경선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화합형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해 민주당 통합은 물론 군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강식 "후보자간 지역 현안 머리 맞대자"

김강식 민주당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장 입후보자들의 '동행'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수의 모든 후보자들이 여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 합심해 당면 현안과 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여주시 현안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서울에 여수학속 건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국 확대와 정부 지원 촉구 ▲지역 인력센터 운영 ▲시립박물관 설립 등을 꼽았다.



임성훈 "민주당 후보 확정에 감사"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임성훈 후보는 14일 "많은 당원과 시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강인규·이길선 후보에게 감사한다"고 후보 확정 소감을 밝혔다. 임 후보는 "새로운 변화와 활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생각하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나주시장 선거는 임성훈 민주당 후보와 이광형·김대동·주항득·최동원 등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화 "금남로·충장로 되살려야"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려면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충장로 번영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도시를 몇 개의 조형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모습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보일 때 가능하다"며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머금고 있는 금남로와 충장로를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재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화 "시민참여 교육예산제 도입"

박인화 광주시 광산구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시교육청 예산의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 학부모 등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교육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시민참여 교육예산제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교육계 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중복투자 등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재신 "밀실·야합·패거리 사라져야"

유재신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광산구청장 경선이 정책과 비전, 공약은 사라지고 밀실과 야합, 패거리만 있다"면서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 경선 전이 진흥탕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유언비어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비전과 공약은 사라지고 모 후보의 경선 후보자 홍보물에는 사진과 번지르르한 언변만 있음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병호 "투자 확대 통해 공교육 강화"

안병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14일 "낙후된 함평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며 "투자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현재 함평군의 교육예산은 6억원 정도로 교육환경과 투자비중은 도내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이춘석 민주당 광주시의원(북구 제4선거구, 오차·용봉·임동) 예비후보는 14일 "7년 동안의 학교운영위원장 경험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친환경 농산물을 통한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까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농산물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도·농 복합지역인 북구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 선관위 '아이디어 공모작' 6편 선정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재성)가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련해 작품성이 뛰어난 6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 1편에는 100만 원, 우수작 2편에 각 50만 원, 장려작 3편에 각 30만 원과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작은 김혜진, 김우철 남매가 응모한 '투표를 제고를 위한 행복투표 공식 + X'가 선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ja@

인양→배수→탐재→실종자 수색順

軍, 함미 절단면 바지선 탐재 후 273m 거리서 공개키로

■천안함 함미 인양 과정은

실종자 대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함미 부분 인양이 임박했다. 민간 인양업체가 함미 중간 부분에 마치 막인 세 번째 쇠사슬을 연결함으로써 인양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끝나게 되며, 군 당국은 15일 오전 중에 함미를 물 밖으로 완전히 끄집어 내게 된다. 침몰 20일 만에 '처참한 모습'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세 가닥의 체인이 모두 연결되면 체인의 위치를 재확인한 뒤 대형 크레인인 선체를 천천히 끌어올리게 된다. 군은 순수한 함미 무게가 62t, 함정 내 가동 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해수와 유류 등의 무게를 1천264t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천889t이라는 엄청난 중량이라서 배수작업을 통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선체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430t의 해수가 자연배수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물 밖으로 건져 올리면 시선 등 내부 부유물이 유출될 수 있어 10cm씩 끌어올려 소량씩 배출해야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연배수가 끝나면 17대의 배수펌프를 동원해 선체 격실 등의 물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양은 504t 정도다. 군은 배수작업에만 2시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사히 배수 작업을 마치면 인양 크레인 선체를 바로 옆에 대기 중인 대형 바지선을 막기 위해 크레인 하단부와 선체 사이에 연결줄, 즉 가이드라인을 연결한다. 사고 해역의 강풍으로 대형크레인에 매달린 선체가 그네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크레인 하단부와 선체 사이에 연결줄, 즉 가이드라인을 연결한다. 해군구조전문장교인 송무진 해군 중령은 "바지선 탐재 단계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역시 최단시간으로, 5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작업을 거쳐 선체가 바지선 거치대에 내려앉으면 인양작업은 종료된다. 군은 인양에서부터 배수, 탐재, 실종장병 수색에 이르기까지 약 1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후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부대(UDT) 요원을 대거 선내로 투입해 실종자 탐색 작업을 한 뒤 선체를 광역 2함대사령부로 이송해 본격적인 사고원인 분석에 돌입한다. 한편, 천안함 함미 부분의 절단면을 전면 공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내부구조와 무기탐색 상황 등을 전면 공개하는 것은 천안함과 유사한 20여척의 다른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단면을 부분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와 관련, "함미 인양이 완료되고 바지선에 탐재한 직후에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거리는 300야드(273m)까지 하겠다"며 "취체진은 20명 선이며 촬영 선박은 2척을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1.8km 후방에 대기하다 진입해 함미 부분을 선화한 다음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촬영토록 한다"며 "거의 함미 부분은 전체를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단면은 그물망이 설치된 상태에서 촬영된다고 해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평화롭던 산골마을 순식간에 폐허로



■중하이성 진도 7.1 강진 가옥·학교 등 붕괴 피해 커

평화롭고 조용한 산골마을이 갑자기 발생한 강진으로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 버렸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위수 장족자치주 위수현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은 해발 5천m에 육박하는 고산지대 마을을 눈깜짝할 사이에 아수라장으로 뒤바꿔 놓았다. 진앙지인 위수현 상리수향 마차촌에서 50km 남짓 떨어진 자치주 정부 소재지인 제구진에서는 전체 민가의 85%가 붕괴됐다. 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의 위화사 부국장은 "길거리에 부상자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며 사람들은 거의 패닉 상태"라고 현지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자치주 정부청사의 회의실 건물도 무너져 내렸고 위수현의 건물 밖에 커다란 금이 갔다. 또 최소한 직업학교 한 곳도 붕괴돼 많은 학생들이 매몰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 부국장은 전했다. 현지 소방서 관리인 캉쯔푸는 관영 CCTV

에 "위수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 학생 20여 명이 잔해에 깔려 있어 이들을 구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수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천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을 장씨로 밝힌 위수초등학교의 교사는 "학교 건물이 모두 무너졌으며 학생 5명이 숨졌다"며 "지진 발생 당시 아침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는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 화를 피했지만 일부는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www.kimyoung.co.kr

김영면 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개강 ▶ 5월 3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중이편입: 1학기부터 2학기까지 4학기 과정 분제지중이편입: 1학기부터 2학기까지 4학기 과정
편입수학	선형대수학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